

# 미국 관세 조치 램발 반대에 관한 중국정부의 입장

벨지그 매체 :

월가, 미국 관세정책 충격 가장 먼저 받아

최근 미국은 다양한 구실로 중국을 포함한 모든 무역파트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각국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세계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했다. 중국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단호히 반대한다.

미국의 관련 행위는 기본 경제법칙과 시장원칙에 위배되고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달성한 리익균형 결과를 무시했으며 미국이 오래동안 국제무역에서 막대한 리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했다. 미국이 관세를 최대한의 압박과 사익을 추구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경제적 횡포이다. 미국은 이른바 '상호'와 '공정'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제로섬게임(零和博奕)을 하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미국 우선'과 '미국 특수'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관세를 수단으로 기존 국제경제

무역 질서를 무너뜨리고 미국의 리익을 국제사회의 공익에 우선시하며 전 세계 각국의 정당한 리익을 희생하여 미국의 패권리익을 섬기는 것으로 필연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중국은 문명고국과 레의지국이다. 중국인민은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대하고 신뢰를 근본으로 삼는다. 우리는 사단을 일으키려 하지 않지만 사단이 일어나면 두려움없이 용감하게 대처할 것이다. 압박과 위협은 중국측과 교류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중국은 이미 그리고 앞으로도 단호한 조치를 취하여 자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리익을 수호할 것이다.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상호 리익과 상생에 있다. 미국은 랑국과 세계 인민의 공동 기대에 부응하고 랑국의 근본 리익을 수호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관세를 무기로 한 대 중국 경제무역 역압을 중단하고 중국인민의 정당한 발전 권리를 훼손하는 것을 중지

해야 한다.

중국은 세계 제 2의 경제대국이자 제 2의 상품소비시장으로서 국제경제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의 대외개방의 문은 점점 더 넓어질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규칙, 규정제도, 관리, 표준 등의 제도적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며 높은 수준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 및 편리화 정책을 시행하여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세계와 발전 기회를 공유하여 상호 리익을 실현할 것이다.

경제세계화는 인류사회발전의 필수 경로이다. 세계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는 글로벌 무역 발전,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개방과 협력은 역사적 흐름이며 세계는 결코 서로 폐쇄되고 분리된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상호 리익과 윈윈은 사람들의 바람이며 이웃을 희생시키는 경제적 횡포는 결국

자신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경제세계화를 더욱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보편적인 혜택이 있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이다.

발전은 소수 국가의 특혜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보편적인 권리이다. 국제적인 사무는 모두가 함께 상의하여 처리해야 하며 세계의 미래와 운명은 각국이 함께 결정해야 한다. 무역전쟁과 관세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보호주의는 출로가 없다. 각국은 공동의,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원칙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다양한 형태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공동으로 반대하며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체제를 수호하고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해야 할 것이다. 공정과 정의를 믿는 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력사의 정확한 편에서 자신의 리익에 부합되는 선택을 할 것이다. 세계는 패권이 아닌 공정을 요구한다.

벨지그 유력 경제일간지 《메아리신문》은 최근 논평을 통해 미국이 최근 발표한 관세정책은 글로벌 시장에 심한 충격을 주었으며 미국 본토 시장이 가장 먼저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메아리신문》은 논평에서 금융시장의 반응은 가장 설득력이 있다면서 3일 월가 주가지수 폭락 및 유로·달러 환율 등 주요 통화 환율의 급락은 혼란한 상황 속에서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후광이 퇴색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메아리신문》은 미국정부가 수백만 국민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월가의 주가 대폭락에 직면해서도 무덤덤해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관세) 정책으로 인한 통화팽창 우려도 간과되고 있다면서 구매력이 타격을 받으면서 미국 경제성장을 뒤받침하고 유지하는 소비 엔진이 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 득세했던 '미국 레오주의'가 어쩌면 쓸쓸히 퇴장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 신화넷

트럼프

'틱톡 금지법'에 재차 75일 추가 유예



미국 대통령 트럼프 / 중앙텔레비죤방송넷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4일 소셜 미디어(社交媒体)를 통해 틱톡(TikTok)에 '매각하지 않으면 바로 금지한다'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270일내 틱톡을 비(非)중국기업에 매각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2025년 1월 19일후 미국내 서비스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자신이 이끄는 정부는 '틱톡을 구하기 위한' 협정을 추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이 큰 진전을 이뤘지만 합의에 도달하려면 아직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2024년 4월, 당시의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국회 랑원이 통과한 '매각하지 않으면 바로 금지한다'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270일내 틱톡을 비(非)중국기업에 매각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2025년 1월 19일후 미국내 서비스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는 금년 1월 20일 취임 첫날, 이 법률의 실질적 집행을 4월 5일까지 75일간 연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 신화넷

##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34% 추가 관세 부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2025년 4월 10일 12시 01분부터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4일 공고를 통해 발표했다.

공고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2025년 4월 2일 미국정부는 중국산 대 미국 수출 상품에 '상호 관

세'(对等关税)를 부과했다. 미국측의 작법은 국제무역 규칙에 부합되지 않으며 중국측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전형적인 일방적 패권행위이다.

〈중화인민공화국관세법〉,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등 법률, 법규

와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근거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2025년 4월 10일 12시 01분부터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한다. 2025년 4월 10일 12시 01분 이전에 상품이 출발하여 2025년 4월 10일 12시 01분부터 2025년 5월 13일 24시까지 수입되는 경우 본 공고

에 명시된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중국측은 미국측이 즉시 일방적인 관세 조치를 철회하고 평등, 존중과 호혜적인 방식으로 협상을 통해 무역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 신화넷

## 우리 나라 중희토류 관련 품목 수출 통제

〈중화인민공화국수출통제법〉 등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4일 상무부는 해관총서와 함께 사마륨(钐), 가돌리늄(钆), 테르븀(铽), 디스프로슘(镝), 루테튬(铥), 스칸듴(钪), 이트륨(钇) 등 7가지 중희토류(中重稀土)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 공고를 내고 발표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상무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에 중국정부가 관련 품목에 대해 법에 따라 수출 통제를 시행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리

익을 더 잘 보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의무를 리행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품목은 군민 랑용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다. 책임있는 대국으로서 관련 물품을 수출 통제에 둔 것은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을 확고히 수호하는 중국의 일관된 입장을 보여 주었다. 중국은 량자 수출 통제 대화교류 기제를 통해 외교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준법 무역을 촉진하기를 원한다.

/ 신화넷

## 희토류 수출 통제, 국가안보 수호 결의 구현



2024년 5월 10일, 포두강철그룹에서 찍은 희토류 강판재.

/ 신화넷

〈중화인민공화국수출통제법〉 등 관련 법률 및 법규에 따라 4월 4일 상무부는 해관총서와 함께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 공고를 발표하고 시행했다.

중국비철금속공업협회는 4월 6일 희토류 관련 품목이 군민 랑용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정부가 이번에 국제관행을 충분히 참고하여 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시행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안전을 확고히 지키려는 결의를 보여주었다고 전했다.

중국비철금속공업협회는 희토류가 '공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며 우수한 자기, 빛, 전기, 촉매 등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빛, 열, 전기, 자기 등 첨단 소재의 성능을 조절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핵심 요소이며 첨단무기장비, 항공

우주부품, 풍력발전,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로봇 및 스마트 제조 등 전략적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서 핵심 원자재 자원으로 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희토류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중국비철금속공업협회는 중국 희토류 기업들이 공식 요구에 따라 준법 무역을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견지하게 함으로써 관련 물

품이 군사 목적이거나 민감한 분야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비철금속공업협회는 또한 우호 국가들과의 국제 호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산업체인의 상하류 기업간의 협력과 융합을 심화하여 산업의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안보라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신화넷

## 트럼프 반대 항의 행사 미국 전역서



3월 29일, 시위자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파사데나의 한 테슬라매장 밖에 모여있다. / 신화넷

현지시간으로 5일,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정부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의 관련 정책에 반대한 시위가 1,000여건 발생했다. 행사 주최자는 이날 수도 워싱턴과 미국 50개 주에서 약 1,300회의 시위가 열렸으며 수백개의 사회단체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주최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시위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집단 시위라고 밝히며 수백만명의 시민들이 미국 전역에서 동시에 행동하여 전례없는 규모로 의료권역, 노동소득, 교육공정성, 시민권리 및 민주제도를 수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정부의 노동권리 축소, 의료보험체계 파괴 및 전 국민 생활비의 지속적인 상승을 초래한 조치는 시민들의 항의를 촉발한 주요 원인이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약 10만명의

시위대가 시위를 벌였다. 남캘리포니아 시위 주최자인 에밀리 윌리엄스는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혼란'이 시작된 지 두달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의 무모한 계획으로 인해 국가가 곤경에 처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 스콧 위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시위집회에서 트럼프정부에 반대하는 동원이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각계가 단결하여 트럼프정부에 굴복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정부와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의 대규모 련방 직원 해고, 의료 프로젝트 예산 삭감, 이민자 추방 등의 정책들은 계속해서 시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실 이번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한 지 전에도 여러차례의 시위가 각지에서 연이어 발생했다.

/ 신화넷